

양재대로 방음벽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청원 번호	82
----------	----

2018년 2월 22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경 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2월 8일, 주민호 외 756명
- 나. 소개의원 : 최호정 의원
- 다. 회부일자 : 2018년 2월 12일
- 라. 상정일자 :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8년 2월 22일 상정, 채택)

2. 청원의 요지

가. 청원이유

- 서울시는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연장공사에 따른 구룡지하차도와 염곡동서지하차도를 건설하며 두 지하차도 간의 지상 단절구간은 도로소음민원 해소를 위해 방음벽 설치를 추진 중이나,
- 해당 지역주민들은 양재대로 건너편 구룡산의 자연환경을 단절시키는 방음벽 설치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구룡지하차도와 염곡지하차도를 지하로 연결하자는 민원을 제시하고 있음.

나. 주요내용

- 지역주민들은 구룡지하차도와 염곡동서지하차도 간 지상 단절구간의 방음벽 설치를 반대하며, 해당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등의 방음시설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시공방법 전환을 요청함.

다. 청원소개의원 요지(소개의원: 최호정 의원)

-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8공구 연장공사 중 구룡지하차도와 염곡동서지하차도를 건설하면서, 두 지하차도 간의 지상 단절구간은 주민들의 도로소음민원 해소를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은 양재대로 건너편 구룡산의 자연환경을 단절시키는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내면서, 구룡지하차도와 염곡동서지하차도를 지하로 연결하자는 민원을 제시하고 있음.
-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랜 세월에 거쳐 누려온 자연환경의 수혜를 박탈하면서 방음효과도 확신하기 어려운 방음벽을 무리하게 설치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움. 또한 운전자의 입장에서 약 1.7km의 짧은 구간을 지하차도와 지상구간, 지하차도 구간을 반복 운전하게 되면서 안전운전에도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지역주민 환경권과 운전자의 안전권을 고려해 현재 계획 중인 방음시설의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시공방법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청원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양재대로의 연속류 확보를 위한 지하차도 설치 계획 중 구룡지하차도와 염곡동서지하차도 간 지상단절구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기존에 계획된 방음벽 설치를 반대하며 대안을 요청하는 사안임.



[그림] 방음벽 설치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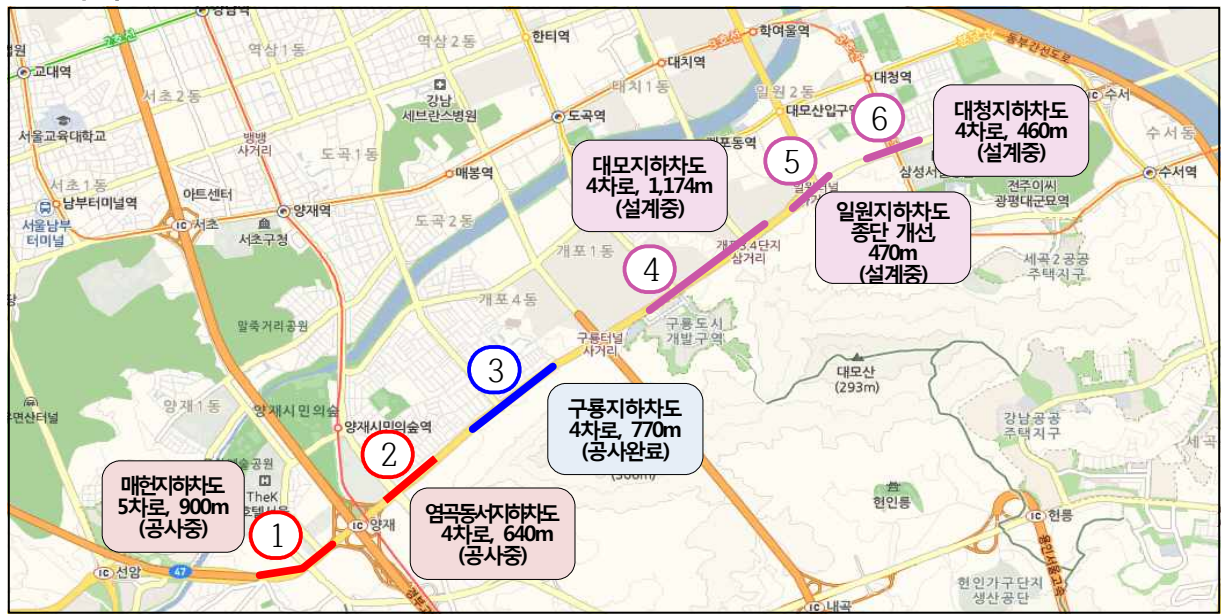
[그림] 대상구간 현황사진

<양재대로 지하차도 개요>

- 구 간: 과천시 주암동 ~ 삼성서울병원사거리
- 지하차도

구분	지하차도	공사	위치	규모	비고
1	매현지하차도 (화물터미널지하차도)	신설	과천시 주암동 ~ 서초구 양재동	5차로, 900m	공사중
2	염곡동서지하차도 (제2염곡지하차도)	신설	염곡사거리	4차로, 640m	공사중
3	구룡지하차도	신설	구룡사 앞 교차로	4차로, 770m	공사완료 (‘14.9.)
4	대모지하차도	신설	구룡마을 입구 교차로 ~개포3,4단지 교차로	4차로, 1,174m	설계중
5	일원지하차도	개선	일원터널교차로	6차로, 470m	설계중
6	대청지하차도	신설	삼성서울병원사거리	4차로, 460m	설계중

○ 위치도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는 2002.3월 실시설계 완료 당시 본선고가교(선암TG~염곡교차로), 구룡지하차도, 대모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같은 해 7월 착공했다가 고가차도로 설계된 강남순환 본선(선암TG~염곡교차로)구간에 대해 반대 민원이 제기되자 서울시가 2010년 9월 고가차도 대신에 지하차도로 변경하였으며,
- 이에 청원 대상 구간 중 구룡지하차도는 2010.10월 착공하여

2014.9월에 개통하였고 염곡동서지하차도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2019.12월 준공예정)에 있음.

- 참고로, 구룡지하차도 이후의 잔여구간인 양재대로 지하차도 구간(대모지하차도, 일원지하차도(중단 개선), 대청지하차도)은 최종적으로 2017.10월 제4차 투자심사에서 대모지하차도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일원지하차도와 대청지하차도는 계획을 재보완하는 ‘조건부’로 결정되어 현재 설계가 진행 중임.
- 양재대로 지하차도 구간(과천시 주암동~삼성서울병원사거리) 중 본 청원 구간은 구룡지하차도와 염곡동서지하차도 사이 지상구간에 해당하며, 환경부와 방음시설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8130, 2010.09.08.)¹⁾ 소음환경기준 충족을 위해 700m 연장에 15m 높이의 투명방음벽 설치가 결정되어 이를 설계에 반영한 상태임([표] 참조).

[표] 소음분석·예측 결과

위치 (STA.)	방향	현황소음 측정결과		사업완료 후 예측 소음도		저감방안			저감후 소음도	
						방음벽 설치		저소음포장		
		주간	야간	주간	야간	높이(m)	설치구간(STA)	포장구간(STA.)	주간	야간
2+300	좌	64.9	60.0	74.9	72.8	15.0	2+070 ~2+310	2+070 ~2+770	56.9	54.8
2+400	좌			75.1	73	15.0	2+310 ~2+520		56.5	54.4
2+600	좌			74.8	72.7	15.5	2+520 ~2+770		56.8	54.8

- 청원인은 이 방음벽([그림] 참조)에 대해 폐쇄감, 공기흐름 차

1) 소음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 이하)을 만족하기 위한 15m 높이 방음벽 설치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소음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단위: dB(A))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 준	
		낮 (06 : 00 ~ 22 : 00)	밤 (22 : 00 ~ 06 : 00)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일반주거지역)	65	55
	"다"지역(상업지역)	70	60
	"라"지역	75	70

단, 녹지대 수목훼손, 건물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서 해당구간의 방음벽 설치 계획을 철회할 것과 지하화 등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그림] 방음벽 설치 예상도(방음벽 높이=15m)

- 이 같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개통(2014.9.)되어 공용중인 구룡지하차도의 상당부분을 철거하여 지하로 연속화하는 것은 막대한 매물비용 및 건설비용 추가발생(3,000억원 추정, 서울시) 등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이미 개통된 구룡지하차도와 현재 한창 공사 중(공정율 40%)인 염곡동서지하차도 구간을 전면 지하화하자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시점에 있다고 판단되며
- 다만, 방음벽 설치 철회 요구의 건은 소음환경기준 충족과 주민 요구 반영이 대치(對峙)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음환경기준 역시 종국적으로는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

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환경부와의 재협의를 필요하다고 하겠음.

-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현재 여러 가지 대안으로 검토 중인 U-type 구간 방음터널, 방음벽, 방음림, 저소음포장 등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소음저감은 물론 주민이 만족할만한 최적의 절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그림] 참조).

대안 1. U-type 방음터널 + 토공부 방음벽

A-A'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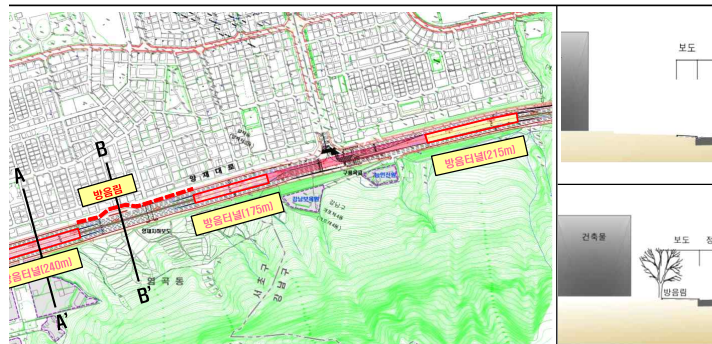
B-B' 단면



대안 2. U-type 방음터널 + 토공부 방음림

A-A' 단면

B-B' 단면



[그림] 현재 서울시가 검토 중인 양재대로 방음시설 대안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채택(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1. 의견서 : 별 첨

의견서

□ **청원명 : 양재대로 방음벽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안전총괄본부)**

□ **처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 본 청원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양재대로의 연속류 확보를 위한 지하차도 설치 계획 중 구룡지하차도와 염곡동서지하차도 간 지상단절구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기존에 계획된 방음벽 설치를 반대하며 대안을 요청하는 사안임.
- 해당 방음벽은 환경부와 방음시설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8130, 2010.09.08.) 소음환경기준 충족을 위해 700m 연장에 15m 높이의 투명방음벽 설치가 결정되어 이를 설계에 반영한 상태이나,
- 청원인은 이 방음벽([그림] 참조)에 대해 폐쇄감, 공기흐름 차단, 녹지대 수목훼손, 건물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서 해당 구간의 방음벽 설치 계획을 철회할 것과 지하화 등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청원 내용 중 대상구간을 전면 지하화하자는 요구는 이미 개통된 구룡지하차도와 현재 한창 공사 중(공정율 40%)인 상황을 감안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 방음벽 설치 철회 요구의 건은 소음환경기준 충족과 주민 요구 반영이 대치(對峙)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음환경기준 역시 종국적으로는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환경부와의 재협의를 필요하다 사료됨.

- 따라서, 서울시는 현재 여러 가지 대안으로 검토 중인 U-type 구간 방음터널, 방음벽, 방음림, 저소음포장 등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소음저감은 물론 주민이 만족할만한 최적의 절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82	접수연월일	2018. 2. 8
청원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성명	주민호 외 756명	
소개의원	최호정	소속위원회	기획경제
건명	양재대로 방음벽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도시안전건설		
<p>○ 서울시는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연장공사에 따른 구룡지하차도(4차로, 770m)와 염곡동서지하차도(4차로, 640m)를 건설하면서 두 지하차도 간의 지상 단절구간(약 280m)은 주민들의 도로소음민원 해소를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p> <p>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은 양재대로 건너편 구룡산의 자연환경을 단절시키는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구룡지하차도와 염곡지하차도를 지하로 연결하자는 민원을 제시하고 있는바, 지역주민 환경권과 운전자의 안전권을 고려해 현재 계획중인 방음시설의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시공방법으로의 전환을 요청함.</p>			